마리아 코스워크(coursework)

(마28:20b)

20b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서 마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으로 복음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 그 '너희'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교회에 다니면 다 '너희'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실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주님이 함께하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여기서 함께하실 '너희'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 코스워크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리아 코스워크입니다.
이 마리아 코스워크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 코스워크를 수행해서 주님이 함께하실 그 사람들, 함께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함께한다는 게 어떤 것을 함께한다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봅니다.

코스워크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갔다면 대학생으로서 하는 활동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수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과목에 들어가서 수업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졸업에 필요한 수업활동, 이것을 코스워크라고 해요.
대학생으로서 캠퍼스 안에서 서클활동, 봉사활동 등 많은 것을 합니다만 그것들은 졸업에 필요한 코스워크가 아닙니다.
코스워크는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수업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코스워크가 끝나면 학위증이 주어지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 코스워크를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일이 졸업장처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 코스워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채로 죽으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두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과는 반대로 심장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며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심장을 드리면서 함께합니다.
동일시합니다, 자기를 일체 시킵니다.
그리고 주니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지낼 때 마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려서 자기 마음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서 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겨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면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자로서 기독교인 제1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무덤에 묻히신 상태를 심장을 그곳으로 주면서 같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이 코스를, 그대로 밟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이 현장에 도달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이렇게 이 마리아 코스워크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고, 와서 만난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교회가 어떤 자들이 모인 곳이냐 하는 것을 딱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영적인 실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죽음의 강가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은 죽음의 강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놓여 있는 실제 상황은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의 강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자식문제가 아주 크게 눈앞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놓인 상황은 자식문제가 실제상황이 아니고 죽음의 강가에 놓여 져 있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 자리,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내 마음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인하고 거부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음으로 다 수용해야만 되는 이 자리, 지금 이 마지막 자리,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마리아 코스를 밟아야만 되는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실존의 자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날마다 뉴스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날마다 뉴스거리가 있어요,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놓여 져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상황도 아니

고 가정의 상황도 아니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죽음의 강가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때 간혹 풀장에 가면 아이들이 수영할 생각은 안 하고 장난을 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이런 장난을 합니다, 몰래 물속으로 들어가서 친구의 수영팬티를 확 벗기고 그리고 잠수해서 멀리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팬티가 벗겨진 애는 다급해서 우선 팬티부터 올리느라고 범인을 확인할 새가 없고, 그 사이에 잠수해서 도망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은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몸은 돈이 문제가 되는 상황, 건강이 문제가 되는 상황, 아내와 남편이 싸워서 냉전인 상황, 회사가 적자다 흑자다 하는 상황, 대한민국의 물가가 오르네 마네, 기름값이 높다 낮다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팬티 벗긴 장소이고, 우리가 실제로 마음이 나타나야 될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죽음의 강을 쭈욱 건너서 빠져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건너서 이 세상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심장은 거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꼭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느냐,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마리아 코스를 밟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미스 김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미스 김이 선을 봤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미스터 박하고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미스터 리를 선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다 괜찮아요.
그 둘도 다 좋다고 그래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 예를 들어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미스터 리를 택했다고 그러면 증권회사에 다니는 미스터 박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됩니까?
세상이 미스터 박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 내 인생의 꿈, 이 모든

게 다 미스터 박이에요.
하나님이 미스터 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리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미스터 박인 이 세상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미스터 박에 대해서는 죽어야 미스터 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얘깁니다.

이게 기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 코스워크를 밟는다는 것은 마리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장을 드리는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코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 코스워크를 지나면 당연히 학점이 주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인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실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있는 한 실지로 처한 상황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몸이 처한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황은 수영장에서 팬티 벗기고 도망가는 것처럼 바로 팬티가 벗겨진 상황일 뿐이지 내가 나타나야 될 장소는 죽음의 강 건너편의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내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매일의 과제는 마리아 코스를 밟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6개월 코스, 1년 코스, 2년 코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코스는 매일 매일 하루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코스를 매일 매일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마리아 코스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함께하신다는 이 함께하심의 내용이 뭘까요?

'항상'이라는 말은 '매일 매일을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겠다,' 즉, 마리아 코스워크를 밟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함께하신다'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수영장에서 장난할 때처럼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돈 문제가 벌어진 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붙들고 씨름하여 마음을 그곳에 쏟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쪽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몸은 있지만 지금 몸이 처하고 있는 돈이 문제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쏟아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몸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해주시는데, 어떻게 함께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누구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강 건너편에 계신 주님께서 몸이 남아있는 죽음의 강 이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한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의 심장이 빠져나가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죽음의 강을 건너갔어요.
그러니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이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세상 바깥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세상 바깥에 있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데 내 몸은 이곳에 남아있으니까, 마음이 없는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몸에 대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자리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영이신 분이.
영이신 분께서 내 몸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필요한 그 마음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한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차꼬에 채웠습니다.
자, 몸이 처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때 사도바울이 한 게 뭐냐 하면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 마리아 코스워크를 밟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차꼬에 채워지고 매 맞아서 피 흘리고 아픈 몸이 처한 이 감옥에 있지 않고, 이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음이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 마음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서 찬양이 나옵니다.

마음이 행복해진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통하고 분할 텐데, 이곳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몸이 남아있는 이쪽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인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죽음의 강 저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 불 보듯이 내 몸이 처한 곳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주세요, 성령님! 이루어주세요!' 해 놓고는 내 마음이 그것을 느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 몸이 있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버립니다.
즉,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죽음 이편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와 버려요.
이 몸이 있는 곳에서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큰 역사가 일어나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를 체감해버리고 느껴버립니다.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흡입해버립니다.
'아,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스테반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버린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간 마음으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구경합니다.
그때 스테반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을 돌로 치는 자들을 구경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몸이 있는 상황을 마음이 떨어져서 그냥 구경하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스테반의 몸을 저렇게 돌로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몸이 처한 상황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안돼요, 느낌은 주님을 느끼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아버지하나님을 느끼고 천국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느낌이 없다는 것이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강 건너편에서 부활하신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 세상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마음이 빠져나간 몸이 주님이 그 몸의 마음이 되어주셔서,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세상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간 만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 성령!' 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은 간구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간구해서 죽음의 강을 빠져나가면 마리아 코스를 밟아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온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해주시는 겁니다.

마리아 코스워크!
어떻게 밟아가지요?
세상일에 휘둘리고 있어요, 휘둘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죽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의 말씀들이 들어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망하겠구나!’ 이것도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저런 꼴로 사람노릇 못 하겠다’ 이거 다 내 생각 같아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근원을 찾아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쫓아내려면 십자가가 정점인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세상이 끝나니까.
십자가가 세상의 말씀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말들이 쫓겨나갔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마리아 코스를 밟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걸 하면서 이 세상의 말씀에 휘감겨서 세상 한복판에 있던 내 마음을 강가로 끌어내고, 강가에서부터 강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께로 마음을 보내면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함께한다는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몸이 남아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몸의 삶이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 코스워크,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매일 매일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학사코스, 석사코스, 자격증 코스, 이 모든 코스 중에 마리아 코스워크, 이게 제일 우선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 되어 몸에 처한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